



한전 전북본부·모래내시장 상인회, 협약 체결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본부장 이경섭)와 전주 모래내시장 상인회(회장 이완열)는 지난 22일 모래내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전통시장 전기안전 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전북본부는 전통시장 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통시장 내 전력망계와 인입선에 IoT 설비를 설치하는 등 전기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기안전 서비스란 누전, 과부하, 정전, 온도 등을 실시간으로 감시해 이상징후 발생 시 한전으로 SMS를 자동발송해 신속한 조치로 전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말한다. /김윤상 기자



석영건설, 소외계층 위한 '사랑의 성금' 전달

(유)석영건설(대표 이성모)은 지난 23일 다가오는 동절기에 어려움을 겪을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전주시에 성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유)석영건설은 지난 2018년 추석 명절에 백미10kg 50포를 전달하는 등 따뜻한 지역사회를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이성모 대표는 "소외계층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해서 기부를 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부귀사람' 창간을 축하합니다

진안군 부귀면 주민자치위, 마을신문 창간 1주년 기념식

진안군 부귀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석근)는 지난 22일 마을신문 '부귀사람' 창간 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외부인사 초청 없이 간소하게 자치위원 22명만 참석해 열렸다. 마을신문 '부귀사람'은 작년 10월에 예산 지원 없이 회원들끼리 회비를 모아서 창간한 사례로 많은 호응을 얻었다. 처음에는 회비로 자치사업을 한다는 일부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지금은 부귀면의 자랑거리로 정착했다. 부귀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열정을 알게 된 진안군청에서도 9월에 발간된 3호부터는 예산지원을 해주겠다고 하여 앞으로 마을신문을 발행하는 데 더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재길 부귀면장은 "진안군의 11개 읍면 가운데 주민자치를 선도하는 부귀면 주민자치위원회에는 아이디어



도 많고 자치역량도 높는데 오늘 마을신문 창간 1주년을 맞이한 것은 타의 모범사례로 남을 것이다"며 "마을신문을 만드는데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은 8명의 편집위원들은 부귀면의 보석 같은 존재다"고 격려했다. 한편 부귀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자치문고 운영', 매년 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치르는 '자치시험', '자치위원 선서', '장기조직 기증' 등의 참봉사 실천을 해오고 있으며 아울러 국내·외 동진 모아 이웃돕기 등을 실천하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농협중앙회 전주완주시군지부, 업무협약

농협중앙회 전주완주시군지부(지부장 홍종기)와 전주시 여성자립활동센터는 지난 23일 전주완주시군지부에서 사회공헌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도농교류 및 농촌 봉사활동 참여, ▲지역사회 다양한 자원봉사활동 참여 확대, ▲자원봉사자 인적·물적 인프라 제공, ▲재난재해 등 사회적 위기 극복을 위한 상호 연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황정희 회장은 "앞으로 농협 전주완주시군지부와 다양한 도농교류 봉사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의회 채영병 의원, 효천지구 환경정화활동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채영병 의원(효천4·5동)이 지난 23일 자신의 지역구인 효천지구에서 그동안 쌓아놓은 쓰레기 정화활동에 나섰다. 이날 채 의원은 효천지구 일원 상습적인 쓰레기 투기와 무단 적치물 등 열악한 주변 환경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쓰레기 처리에 앞장섰다. 이날 현장활동에서는 전주시 자원순환과, 완산구청 지원 위생과, 효사동주민센터 등 관계 공무원들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쓰레기 무단투기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효천지구 쓰레기 취약지 주변 환경정비가 이뤄졌다. /김윤상 기자

전북개발공사 여자 육상팀, 전국대회서 맹활약

전북개발공사 여자 육상팀이 전국대회에서 맹활약했다. 23일 전북체육회(회장 정강선)에 따르면 최근 경북 예천에서 열린 '문체부장관기 전국시·도대학육상경기대회 결연 전국대학·일반육상경기대회'에 출전한 전북개발공사 육상팀이 금메달 1개와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 등 총 5개의 메달을 수확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김지은은 개인·단체전 경기에서 모두 좋은 성적을 거두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허들이 주종목인 김지은은 400m 허들 경기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400m에서는 2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또한 김지은은 조은주·오지영·김민지와 함께 출전한 1600m와 400m 계주에서도 각각 은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했다. 마지막으로 김민지는 멀리뛰기에서 값진 동메달을 추가했다. 김우진 감독은 "선수들의 기량을 향상시켜 더 좋은 모습



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이리공고 신유진, 전국대회서 원반던지기 신기록

이리공업고등학교 육상부 신유진(통신과 2)은 제41회 전국시도대학 육상경기대회 여고부 원반던지기에서 대회 신기록을 수립했다. 출전하는 대회마다 새로운 기록을 달성하는 신유진 학생의 앞으로 행보가 더욱 기대된다. 이 대회에서 이리공고 육상부는 신유진의 원반던지기 1위를 비롯해 여고부 해머던지기 1위(홍승연, 통신과3), 포환던지기 1위(최하나, 바이오화학과2), 원반던지기 3위(최하나, 바이오화학과2) 남고부 해머던지기 1위(홍종호, 통신과3) 등의 성적을 거뒀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시상식은 취소됐다. 이리공업고등학교 육상부는 학생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좋은 성과를 거둬 지도 선생님들과 학교에 큰 영광을 안겼다. /장은성 기자

남원시, 제28회 흥부고유제

남원시 흥부제전위는 제28회 흥부제를 맞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제반 행사를 대폭 축소하고 아영면 성리 흥부묘에서 지난 25일 고유제만을 개최했다. 이날 고유제는 흥부정신을 기리며 흥부제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로, 그동안 남원시는 고유제를 인월면과 아영면에서는 놀부와 흥부의 고장으로서 별도로 진행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이웃면과의 상호 발전을 위해 화합하는 뜻으로 함께 고유제를 지냈다. 흥부제전위원회 이동식 위원장은 "인월면과 아영면의 화합을 기반으로 제29회 흥부제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우)6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고창지사 563-6999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66	김제지사 545-1227	임실지사 010-9642-2725
서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6865	진안지사 433-3064
효지지사 010-8645-9335	팔복지사 253-6844	남원지사 632-0995	정읍지사 536-3767
	군산지사 010-6789-0038	순창지사 663-0444	장수지사 010-3882-6157
	익산지사 658-93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